

본문	5·18 민주화 과정
<p>"박정희 대통령 그 양반 찐하제. 홀룡헌 양반인디 부하헌티 그 숭한 꼴을 당혀 불고. 생각하믄 가심이 벌렁거려야."</p> <p>"엄니, 그라도 옆집 아줌니 듣는 디선 그라지 마시오. 서울서 대학 땡기던 큰 아들이 유신 반대하다가 잡혀가 부렸잖소." (p25)</p>	<p>유신 헌법 반대 시위 (부마 민주 항쟁)</p> <p>1979년 10.26사태 박정희 피살 (김재규)</p>
<p>"오늘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서리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간담회에서 전두환 부장서리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관 두 기구를 장악하면 정치 발전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일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." (p49)</p>	<p>1979년 12.12 군사 반란</p> <p>저녁 7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군부 권력을 장악</p>
<p>"대학생들이 또 데모하는갑네. 워째 매캐헌 냄새가 난다 했더니……."</p> <p>"데모가 뭐다요?" 성일이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바라봤다. "금께 대학생들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시내에 돌아댱기문서 막 경찰들하고 싸우고 가라는 거제." (중략)</p> <p>웅성대던 학생들은 느닷없이 큰 소리로 "비상계엄 철폐하라!", "전두환은 물러가라!"며 알 수 없는 말을 외쳤다. (p82-83)</p>	<p>1980년 5.17 쿠데타</p> <p>자정 비상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</p> <p>(정치·집회·시위 금지, 휴교령, 언론 보도 검열 강화)</p> <p>이에 반대하여 5.18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</p> <p>(비상 계엄령 철폐, 전두환 퇴진 주장)</p>
<p>느닷없이 허공에서 따따따파 쇠망치로 쇠덩이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. 그 소리가 난 쪽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. "최루탄인가! 최루탄!" (중략) "군인이여! 총을 멘 군인들이 잔뜩 뛰어나다!" (중략) 정말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은 군인 이삼십 명이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다. 군인 등 뒤로 비죽 나온 것 총이 분명했다. 군인들은 손에 든 곤봉을 휘두르면서 달아나는 학생들을 쫓았다. (p86-87)</p>	<p>전두환은 공수 부대(계엄군)를 동원해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함.</p> <p>수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사망함.</p>
<p>명수는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. 그런데 전화가 되지 않았다. 몇 번을 다시 걸었지만, 뚜두뚜 기계음만 들렸다. "전화가 아직도 안 돼야? 이상허네. 광주 시내는 되는데, 아까부텀 시외 전화는 안 되야. 어디 줘 봐라이." (p116)</p> <p>"즈그들이 총창혀 불고는 지금 광주서 불순분자니 폭도니 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파운다고 공갈치고 있당께요." (p120)</p>	<p>5.21</p> <p>언론 통제 및 조작 (담화문 발표)</p> <p>외곽 도로망 포위·봉쇄</p> <p>(외부 통신 및 교통 차단)</p>
<p>이튿날 일찍 밖에 다녀온 주인 할머니는 공수 부대가 시내에서 물러났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. 아이들은 이제 경기장에 가서 훈련할 수 있겠다며 좋아했다. (p121)</p> <p>도청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. 학생들과 젊은 남자들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. 바닥에 나뒹구는 간판을 들어 옮기고, 쓰러진 공공전화 부스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. 도로에는 총 든 사람들을 태운 커다란 트럭이 지나다녔다. 아주머니들이 군데군데 서서는 지나가는 트럭을 세우고 주먹밥과 음료수를 건넸다." (p127)</p>	<p>광주 시내에서 계엄군이 철수함.</p> <p>광주 시민 시민군 조직</p> <p>(광주 치안 담당, 부족한 식량(주먹밥) 및 물자 나눔, 헌혈 등)</p>
<p>"아재, 그라다 군인들이 돌아오믄 큰일 나는데요. 어른들이 언제 군인이 다시 올능가 모른다고……." (p141)</p>	<p>5.27 새벽 계엄군 광주 재진입</p> <p>시민군 무력 진압(전라남도 도청 공격) 후</p> <p>전두환 간선제로 대통령에 선출</p>